

미디어/엔터/레저 위클리

미디어/엔터/레저 이현지 6199/hjlee1@
RA 고수영 6162/suek66@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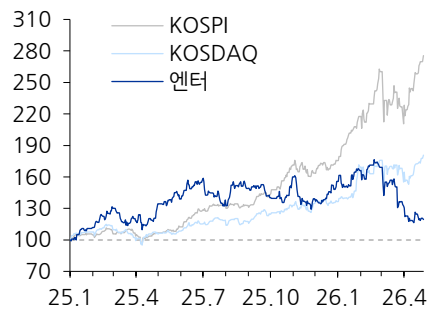
미디어/엔터/레저 Weekly: 2026/04/14~2026/04/27

2026.04.28

[엔터테인먼트]

- 지난 주 엔터 업종 수익률 전주대비 -2%
- 캣츠아이 '핑키 업' 빌보드 HOT 100 28 위 첫 진입. 발매곡 마다 진입 순위 기록 경신 중인 점 고무적, 6~8 월 북미 페스티벌 잇달아 출연하며 음원 흥행 및 투어 규모 확대로 연내 수익화 기대
- 코르티스, NCT WISH 등 저연차 아티스트 성과 두드러지는 가운데 빅뱅 20주년 앨범 및 8월부터 월드투어 시작되며 엔터사들 모두 부진한 1 분기를 지나 2분기부터 실적 및 주가 반등 기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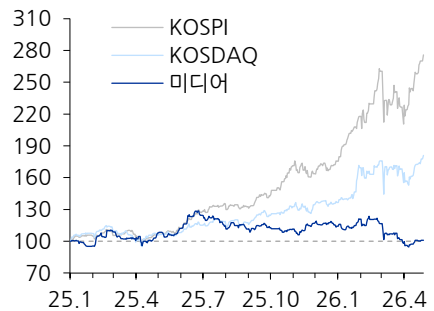
(2025.01.01. = 100)



[미디어]

- 지난 주 미디어 업종 수익률 전주대비 +1%
- 넷플릭스 1 분기 매출 122.5 억 달러(+16%yoy), 영업이익 39.6 억 달러(+18%yoy)로 컨센서스 상회. 2분기 보수적인 가이드스 제시로 주가 급락했으나 WBD 인수 철회로 불확실성 해소된 구간, 가격 인상 효과와 광고매출 확대에 따른 하반기 수익성 개선 기대
- 콘텐츠리중앙 3,000 억원 투자 유치 최종 결렬되며 자금 상환 부담 높아진 가운데, 북중미 월드컵 JTBC-KBS 공동중계(140 억원), MBC·SBS 와 협상 결렬로 콘텐츠리중앙 연결실적 부진 불가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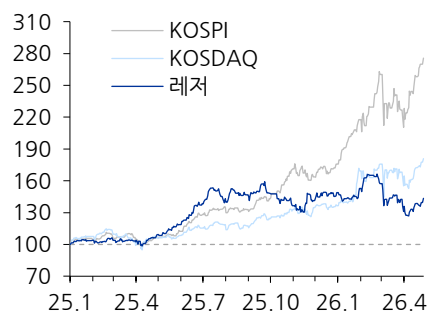
(2025.01.01. = 100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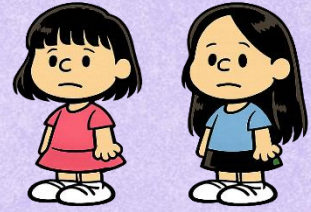
[레저]

- 지난 주 레저 업종 수익률 전주대비 +4%
- 카지노는 4 월말~5 월초 골든위크를 앞두고 본격적인 콤프 마케팅 이루어지며 2분기부터 견조한 실적 기대
- 중국·일본 등 단거리 노선으로 수요 쏠리며 반사 수혜 기대 가능. 3 월 방한 외국인 210 만명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 경신

(2025.01.01. = 100)



엔터 위클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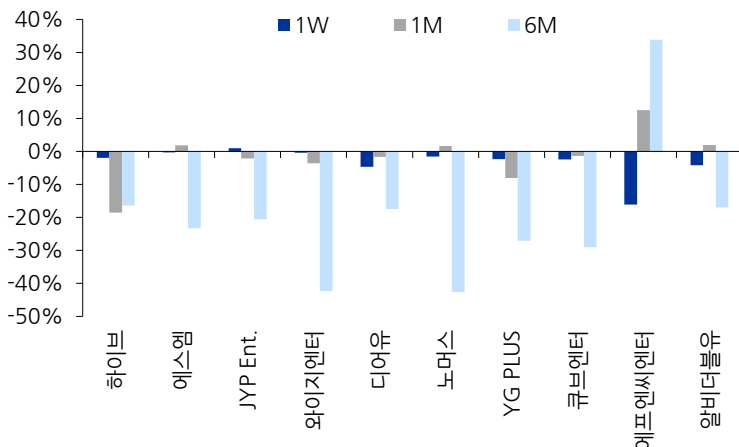
Comment

- 지난 주 엔터 업종 수익률은 전주대비 -2% 기록(vs. KOSPI +6%, KOSDAQ +4%)
- 캣츠아이 '핑키 업'(4/8 발매) 빌보드 HOT 100 28위로 첫 진입. 가브리엘라(94위)→인터넷 걸(29위)→핑키 업(28위)까지 발매곡 마다 진입 순위 기록 경신 중인 점 고무적이며, 4월 코첼라를 시작으로 6, 7, 8월 북미 대형 페스티벌 잇달아 출연함에 따라 음원 흥행에 더해 투어 규모 확대되며 연내 수익화 기대
- 코르티스 선주문 200만장, NCT WISH 초동 182만장 등 신인 및 저연차 아티스트 성과 약진 긍정적. 저연차 모멘텀 더해주는 가운데 빅뱅 역시 20주년 앨범 발매 및 8월 월드투어 계획 발표하며 엔터사들 모두 부진한 1분기를 지나 2분기부터 주요 아티스트 활동 시작되며 실적 및 주가 반등 기대
- 엔터 4사(하이브·SM·JYP·YG)가 글로벌 K팝 페스티벌 '패노미논(Fanomenon)' 개최를 위한 합작법인 설립에 착수, 4사 동일 지분 출자 예정. '27년 12월 한국에서 첫 개최 후 '28년 글로벌 확대 목표. 아직 초기 검토 단계이나 기존 아티스트 중심 투어 구조에 더한 '공연 IP'의 수익화 가능성에 주목

주간 주요 뉴스

- (04/16) 하이브·SM·JYP·YG 합작사 만든다, "코첼라 넘겠다"는 박진영 '패노미논' 프로젝트 본궤도
- (04/21) 에스파, 8월부터 새 월드투어...25개 지역 돈다
- (04/22) 캣츠아이 '핑키 업' 빌보드 핫 100 28위 진입...자체 최고 성적
- (04/23) "최악의 경우 사업 철수"...JYP 아심작 신사옥에 무슨 일이
- (04/24) 검찰, 하이브 방시혁 구속영장 반려 "보완수사 필요"
- (04/24) 코르티스,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 뚫었다...데뷔 후 첫 진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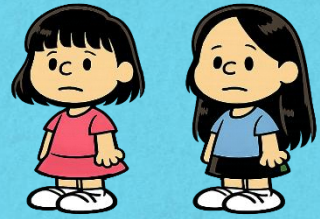
주가 수익률



(pt, 조원) (4/27)	지수, 시가총액	전주대비
KOSPI	6,615	+6.4%
KOSDAQ	1,226	+4.4%
엔터	17.7	-1.5%
하이브	10.8	-2.0%
에스엠	2.1	-0.3%
JYP Ent.	2.2	+1.0%
와이지엔터	1.0	-0.4%
디어유	0.8	-4.6%
노머스	0.2	-1.6%
YG PLUS	0.3	-2.3%
큐브엔터	0.2	-2.5%
에프엔씨엔터	0.1	-16.1%
알비더블유	0.1	-4.2%

자료: Quantivise, 유진투자증권

미디어 위클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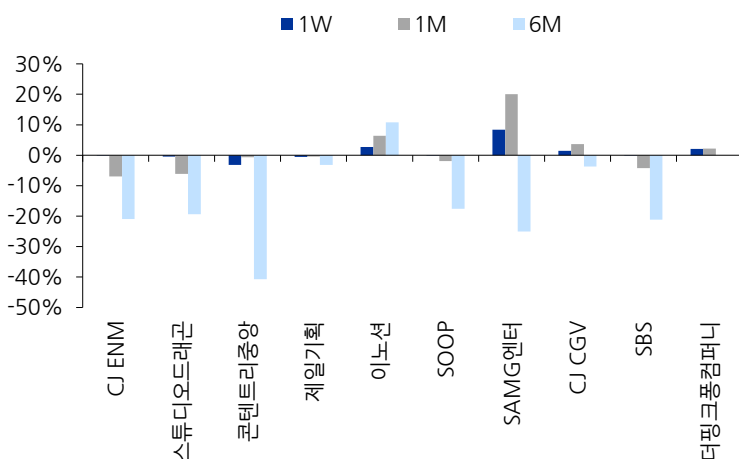
Comment

- 지난 주 미디어 업종 수익률은 전주대비 +1% 기록(vs. KOSPI +6%, KOSDAQ +4%)
- 넷플릭스 1분기 매출 122.5억 달러(+16%yoy), 영업이익 39.6억 달러(+18%yoy)로 컨센서스 상회했으나 2분기 가이던스가 기대치 하회하며 주가 급락. WBD 인수 철회로 불확실성 해소된 구간으로, 상반기 콘텐츠상각비 부담 집중되며 하반기에는 가격 인상 효과와 광고매출 확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
- 국내 미디어는 광고 시장 위축 지속되며 여전히 뚜렷한 촉매 부재. 콘텐츠리중앙은 3,000 억원 투자 유치가 최종 결렬되며 자금 상환 부담 높아진 가운데, JTBC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은 KBS 와 140 억원에 타결, MBC·SBS 와의 협상은 결렬되며 콘텐츠리중앙 연결실적 부진 불가피

주간 주요 뉴스

- (04/15) 콘텐츠리중앙, 글로벌 사모펀드서 3,000억 투자 유치 최종 결렬
- (04/18) BTS 공연·WBC 일본 독점중계, 넷플릭스 18조 매출 이끌었다
- (04/20) 2024년 시청점유율 KBS 1위...CJ ENM 11.1%로 존재감
- (04/22) 북중미 월드컵, JTBC·KBS 공동 중계...MBC·SBS 협상 불발
- (04/23) CJ ENM, 왓챠 인수 안한다
- (04/24) 넷플릭스 37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, 주가 부양 총력전
- (04/24) 파라마운트-워너브라더스 합병안 주주총회 통과
- (04/24) 제일기획 1분기 영업이익 365억...전년 대비 37% ↓

주가 수익률



(pt, 조원) (4/27)	지수, 시가총액	전주대비
KOSPI	6,615	+6.4%
KOSDAQ	1,226	+4.4%
미디어	7.9	+0.6%
CJ ENM	1.2	-0.2%
스튜디오드래곤	1.1	-0.4%
콘텐츠리중앙	0.1	-3.2%
제일기획	2.3	-0.6%
이노션	0.8	+2.7%
SOOP	0.7	-0.2%
SAMG 엔터	0.4	+8.4%
CJ CGV	0.8	+1.4%
SBS	0.3	+0.1%
더핑크퐁컴퍼니	0.2	+2.1%

자료: Quantwise, 유진투자증권

레저 위클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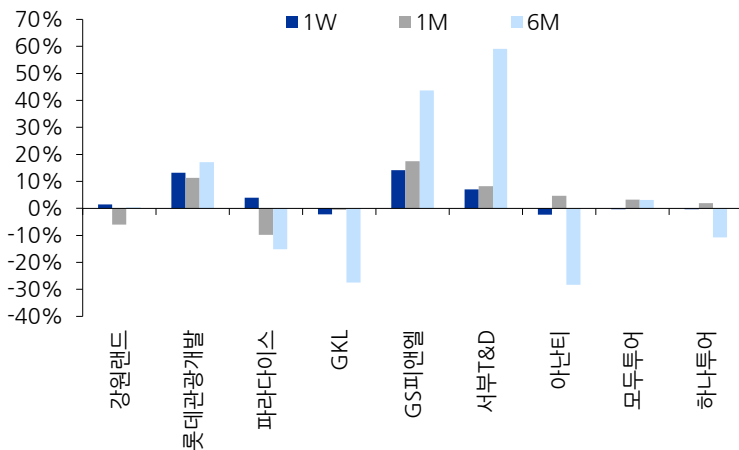
Comment

- 지난 주 레저 업종 수익률은 전주대비 +4% 기록(vs. KOSPI +6%, KOSDAQ +4%)
- 카지노는 4 월말~5 월초 골든위크를 앞두고 본격적인 콤프 마케팅이 이루어지며 2 분기부터 견조한 실적과 함께 추가 반등 기대
- 유류할증료 상승으로 장거리 여행 수요는 위축되는 반면, 중국·일본 등 단거리 노선으로 수요 쏠리며 반사 수혜 기대 가능. 3월 방한 외국인 210만명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 경신

주간 주요 뉴스

- (04/20) 역대 최고 매출 제주 카지노...3차 종합계획 수립 착수
- (04/21) 3월 BTS 컴백 맞춰 외국인 210만명 이상 방한 '역대 최대'
- (04/22) 파라다이스, 한국기업평가 신용등급 A+로 상향
- (04/26) 단거리 해외 여행객 263만명↑ ...일본·중국 중심
- (04/26) "한국 가요" 중국인·일본인, 발길 돌렸다...유가 상승 뜻밖 반전
- (04/26) 방한 관광객 2000만 코앞인데..."서울 호텔 최소 5년은 방 부족"

주가 수익률



(pt, 조원) (4/27)	지수, 시가총액	전주대비
KOSPI	6,615	+6.4%
KOSDAQ	1,226	+4.4%
레저	11.3	+4.4%
강원랜드	3.7	+1.4%
롯데관광개발	1.8	+13.2%
파라다이스	1.5	+4.0%
GKL	0.7	-2.2%
GS 피앤엘	1.1	+14.2%
서부 T&D	1.0	+7.0%
아난티	0.7	-2.3%
모두투어	0.2	-0.3%
하나투어	0.7	-0.4%

자료: Quantwise, 유진투자증권